



한국문학의 성찰과 진로의 모색

독립 문학 운동을 이끌어가는 우리 시대의 문학 전문지

『쓰림-문학의 이름으로』 제6호 발행

문학실험실 / 140*240 / 472쪽 / 값 18,000원 / ISSN 2465-7956

발신: 사단법인 문학실험실 (대표 이인성)

수신: 언론사 문화부 문학 담당 기자 / 인터넷서점 홍보 담당자

담당: 최하연 (문학실험실 사무국장) 010-4212-0752

한국문학의 성찰과 진로의 모색, 『숲-문학의 이름으로』 제6호 발행

‘문학은 다시금 무엇일 수 있으며, 새로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2015년 9월 창간한 반연간 문학전문지 『숲-문학의 이름으로』가 어느덧 제6호 발행을 맞이했다. 이 잡지의 기본 방향은 문학의 본질을 사유하는 질문 그 자체를 향해 있다. 잡지의 창간사에서 밝힌 대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의해 전 지구적 문화산업의 시대, 대중문화의 시대’에 맞서는 ‘강렬한 부정의식과 저항적 실험 정신을 문학 내부의 동력으로 삼아야 함’을 강조해온바, 이번 호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의식이 배어 있는 깊이 있는 글들을 만나볼 수 있다.

총7편의 단단하고 문제적인 비평으로 채워진 이번 호 특집 : 예술성과 대중성-대립적 시각을 넘어서

‘예술성과 대중성’을 사유하는 일은 우리 삶을 형태화하는 문화의 “가장 깊은 곳에 도사린 문제들” 중 하나를 들춰보는 것과 같다. 이 주제는 이미 한 세기도 넘긴 이전부터 대중사회의 형성이 가시화되면서 제기되었지만, 디지털 문명의 등장이 문화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지금처럼 그 논의가 절실했던 적은 없었다. 그간 적대적 이분법 속에서 다뤄졌던 예술성과 대중성의 도식적 경계를 허물며 예술의 근본 기능을 반성해봐야 할 시기는 아닐까. 더불어 예술에 대한 회의에 맞서 자유로운 창조로서의 예술의 자리를 재확인해봐야 하는 것은 아닐까. 나아가 소비 상품의 차원을 넘어서려는 대중문화 작업들이 어떤 미적 가치의 추구로 이어진다면, 그래서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예술을 하나의 지향점으로 설정한다면, 대중성과 예술성이 다시 조우할 여지는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않을까.

단식술로서의 예술: 예술성과 대중성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 | 김태환

노래 혹은 목소리의 시대:통합의 문화사를 제안하며 | 성기완

텔레비전 드라마를 위한 아폴로지 | 홍석경

한국 대중문학사에 봉인된 세계를 찾아서 | 송은영

대중문화적인 것들과 소설 쓰기의 가능성: 1990년 이후의 몇몇 작품에 관한 단상들 | 김동식

나를 읽지 마세요: 문학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가? | 이광호

미적 가상과 창조의 모방: 예술성을 자유로운 창조로 이해하는 한 가능한 길을 찾아서 | 김대산

기획 꼭지 <한국 영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승우, 김정현, 유운성 글 실려

이번 호 작은 기획으로 마련된 ‘한국 영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는 특집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여전히 대중문화의 중심에 놓인 영화는 대중성/예술성의 갈등을 가장 예민하게 드러내는 장르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한국 영화의 현 상황에서 어떤 스펙트럼으로 펼쳐지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점검해보는 것은 중요한 문화적 임무이기도 하다. 규모가 큰 기획은 아니지만, 메인스트림 영화와 독립영화의 현황, 그리고 특이하게 영화관과 미술관에 공존하는—이 역시 트랜스 미디어 작업이다—설치미술가들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논하는 세 편의 글의 무게감은 만만치 않다.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김은미의 <소셜미디어의 말> SNS 언어 현상 집중 분석

‘시시비비’에서는, 이른바 댓글 파문 때문에 다방면의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SNS상의 언어 문제를 잠정적으로 정리해보았다. 이 난의 필자인 김은미 씨는 이에 대한 사회병리학적인 진단을 비롯해, 짧지만 수많은 생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구병모, 김술, 박민규, 이상우, 한유주의 신작 소설과 김선재, 박소란, 황인숙의 신작 시 등

당대의 가장 문제적인 글을 써온 시인 소설가의 작품을 소개해온 창작란도 풍성하다. 한유주 소설가 「개의 구조」(텍스트 실험 공간)을 포함해 구병모의 「꿈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 김술의 「브라운 운동」, 박민규의 「리처드 브라우티건과의 결투」, 이상우의 「부채꼴 모양의 타일이 이렇게」 등 이번 호에 실린 소설은 당대 한국 소설의 가장 첨예한 창작 공간을 선보이고 있다.

차례

특집: 예술성과 대중성_대립적 시각을 넘어서

단식술로서의 예술: 예술성과 대중성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 | 김태환

노래 혹은 목소리의 시대:통합의 문화사를 제안하며 | 성기완

텔레비전 드라마를 위한 아폴로지 | 홍석경

한국 대중문학사에 봉인된 세계를 찾아서 | 송은영

대중문화적인 것들과 소설 쓰기의 가능성: 1990년 이후의 몇몇 작품에 관한 단상들 | 김동식

나를 읽지 마세요: 문학은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가? | 이광호

미적 가상과 창조의 모방: 예술성을 자유로운 창조로 이해하는 한 가능한 길을 찾아서 | 김대산

특집에 덧붙여 - 현장의 목소리: 대중문화의 유희와 문학적 방랑

읽고, 박수 칠 것인가 | 기혁

개미와 유희 | 손보미

새로운, 살진 거위 간 요리 | 이갑수

니트 원피스 방랑기 | 허희정

시와 소설

꿈에 대해 생각하지 말 것 | 구병모

브라운 운동 | 김솔

사실과 취향 외 2편 | 김선재

리처드 브라우티건과의 결투 | 박민규

상추 외 2편 | 박소란

부채꼴 모양의 타일이 이렇게 | 이상우

친구의 엑스와이프 외 2편 | 황인숙

텍스트 실험 공간

개의 구조 | 한유주

그때 그 실험

4·19라는 통과제의: 최인훈의 『회색인』 다시 읽기 | 안서현

시시비비

소셜미디어의 말 | 김은미

작은 기획: 한국 영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_(트랜스)내셔널 시네마에서 '네이션적인 것'으로

초국적 작가 박찬욱의 사례 | 하승우

영화관과 미술관을 나오면서 | 김정현

반딧불의 시간: 한국 독립영화에 대한 관견(管見) | 유운성

문학실험실 신간 리뷰

진연주 연작소설집 『이 방에 어떤 생이 다녀갔다』 | 김나영

제5호 필자 소개

(가나다 순)

구병모 | 소설가. 1976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008년 『창작과비평』의 '창비청소년문학상'을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그것이 나만은 아니기를』 『빨간구두당』과 장편소설 『위저드 베이커리』 『한 스푼의 시간』을 펴냈다.

기혁 | 시인, 문학평론가. 1979년 경상남도 진주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10년 『시인세계』를 통해 시인으로, 2013년 『세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비평가로 등단하여, 시집 『모스크바예술극장의 기립 박수』를 펴냈다.

김나영 | 문학평론가. 1983년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9년 『문학과 사회』를 통해 등단했으며, 현재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대산 | 문학평론가. 1974년 경상북도 의성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비교문학전공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06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달팽이 사냥』을 펴냈다. 현재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김동식 | 문학평론가. 1967년 부산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고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문학동네』를 통해 등단하여, 『냉소와 매혹』 『기억과 흔적』 등 4권의 평론집과 『한국 근대문학의 풍경들』 등의 연구서를 펴냈다. 현재 인하대학교 인문학부 한국어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선재 | 시인, 소설가. 1971년 경상남도 통영에서 태어나 숭실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6년 『실천문학』을 통해 소설가로, 2007년 『현대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여, 시집 『얼룩의 탄생』, 소설집 『그녀가 보인다』 『어디에도 어디서도』와 장편소설 『내 이름은 술래』를 펴냈다.

김술 | 소설가. 1973년 광주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 201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암스테르담 가라지 세일 두 번째』 『망상, 어(語)』와 장편소설 『너도밤나무 바이러스』 『보편적 정신』을 펴냈다.

김은미 | 언론정보학자. 1966년 서울에서 태어나,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했다. 주요 저서로 『연결된 개인의 탄생』 『창조성의 원천』(공저) 『SNS 혁명의 신화와 실제』(공저) 등을 펴냈다. 현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정현 | 미술평론가, 독립큐레이터. 198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강대학교 문과대학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2015년 서울시립미술관 <SeMA-하나 평론상>을 수상해 평단에 나왔다. <퍼포먼스 연대기>와 <아무것도 바꾸지 마라> 등 다수의 전시와 공연을 기획했다.

김태환 | 문학평론가.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독어독문학과 및 오스트리아 클라겐푸르트대학에서 독문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1년 『조선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평론집 『푸른 장미를 찾아서』와 문학 이론서 『문학의 질서』 『미로의 구조』를 펴냈고 다수의 독일 문학서·철학서를 번역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본지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박민규 | 소설가. 1968년 울산에서 태어나,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03년 『문학동네』 장편 공모를 통해 등단하여, 『카스테라』 『더블』 등의 소설집과 『지구영웅전설』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핑퐁』 등의 장편소설을 펴냈다.

박소란 | 시인. 1981년 서울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09년 『문학수첩』을 통해 등단하여, 시집 『심장에 가까운 말』을 펴냈다.

성기완 | 시인, 뮤지션. 1967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불어불문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1994년 『세계의문학』을 통해 등단하여, 『쇼핑 갔다 오십니까?』 『ㄹ』 등 4권의 시집과 『모듈』 『노래는 허공에 거는 덧없는 주문』 등 4권의 산문집을 펴냈다. 록밴드 <3호선 버터플라이> 멤버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아쌈(AFRO ASIAN SOUND ACT)> 밴드의 리더이자, 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손보미 | 소설가. 1980년 서울에서 태어나,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했다. 2009년 『21세기문학』을 통해, 뒤이어 2011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두 번의 등단 과정을 거쳤다. 소설집 『그들에게 린디합을』과 장편소설 『디어 랄프 로렌』을 펴냈다.

송은영 | 문학평론가.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03년 『작가세계』를 통해 등단하여, 현재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학술연구 교수로 재직 중이다.

안서현 | 문학평론가. 1982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0년 『문학사상』을 통해 등단했다.

유운성 | 영화평론가. 1973년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물리교육과 졸업했다. 영화에 입문한 후 『로베르토 로셀리니』 『칼 드레이어』 『한국 단편영화의 쟁점들』 등을 공저로 펴냈다. 현재 영상 전문 비평지 『오콜로』의 공동발행인을 맡고 있으며 단국대학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이갑수 | 소설가. 1983년 서울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문과대학 문예창작학과를 졸업했다. 2011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편협의 완성』을 곧 펴낼 예정이다.

이광호 | 문학평론가. 1963년 대구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위반의 시학』에서 『익명의 사랑』에 이르는 6권의 평론집과 『사랑의 미래』 『지나치게 산문적인 거리』 등의 산문집을 펴냈다. 서울예술대학 문예창작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문학과지성사 대표로

재직 중이다.

이상우 | 소설가. 1988년 인천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2011년 『문학동네』를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프리즘』 『warp』를 펴냈다.

하승우 | 영화평론가. 1971년 서울에서 태어나, 런던대학교 골드스미스 칼리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문화/과학』 『문화연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이론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유주 | 소설가. 1982년 서울에서 태어나, 홍익대학교 문과대학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비교문학전공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03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하여, 소설집 『달로』 『얼음의 책』 『나의 왼손은 왕, 오른손은 왕의 필경사』와 장편소설 『불가능한 동화』를 펴냈다.

허희정 | 소설가. 1989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이다. 2016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했다.

홍석경 | 언론정보학자. 1963년에 태어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신문학과에서 석사학위를, 프랑스 그르노블대학교에서 언론정보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세계화와 디지털 문화 시대의 한류』를 펴냈다. 프랑스 보르도3대학 언론정보학과 부교수로 재직하던 바 있으며, 현재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황인숙 | 시인. 1958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를 졸업했다. 198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를 통해 등단하여, 『새는 하늘을 자유롭게 풀어놓고』 『슬픔이 나를 깨운다』 『못다 한 사랑이 너무 많아서』 등 7권의 시집을 펴냈다.